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초로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황미진(Mi-jin Hwang)¹, 정혜정(Hye-jeong Chung)^{2*}

¹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Double ABCX family stress model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is study, and the major factors examined in the study included a pile-up of stressors, family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appraisal of situation(redefinition of nurturing), and adaptation(depressive mood and happiness). Data were collected by personal interview with 213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utiliz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 pile-up of stressors, the family resources(i.e., contact and emotional solidarity with grandchildren's parents), and the redefinition of nurturing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t was also found that social support had indirect influence on grandmothers'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redefinition of nurturing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participants' psychological adaptation, followed by a pile-up stressor, and then the family resources.

▲주제어(Key Words) : 조손가족 조모(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 가족스트레스 모델(double abcx family stress mode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벌이 가족과 가족해체현상의 증가

로 새로운 가족구조 및 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며 아동을 전담 양육하는 조손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였다(C. Park, 2010).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적 보호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아동의 일상보호를 제공하는 책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Hye-jeong Ch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Tel: +82-63-270-3828, E-mail: chunghj@chonbuk.ac.kr

임을 포함하는 신체적 보호권한을 가진다(Jendrek, 1994).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2세대 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와 그 변화추이를 확인하였다(H. Kim, 2012). 1995년에 조손가족의 수가 35,194가구였고, 2000년에는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 그리고 2010년에는 119,294가구로 조손가족은 계속 증가하였다(Kostat, 2011).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 외에 부모의 맞벌이, 질병, 수감, 경제적 무능, 이혼 및 별거 등 여러 이유로 손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조부모를 포함시킨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조손가족은 더 많아 지고 있다(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009). 자녀이혼이 조손가족 발생사유 가운데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이혼의 증가는 조손가족 증가를 전망하는 근거가 된다(H. Choi, 2002).

조손가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서구에서도 최근 가장 두드러진 인구학적 변화의 하나로 나타나면서 우리보다 먼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고, 학문적 관심 주제가 되었다(K. Han, J. Ju, & J. Lee, 2008). 미국 센서스 자료(2000)를 보면 약 6백만명의 아동이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조손가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조손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다면적인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조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2011년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011)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손가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양육의 주체가 노인이라는 환경과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불리한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J. Park, 2009) 부정적인 관점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이 존재하는데 조손가족을 병리적 가족구조로 보고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며,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관점이다(K. Han, J. Ju, & J. Lee, 2008). 이러한 관점은 가족해체로 아동을 시설이 아닌 정서적 유대가 존재하는 가족의 범주에 머물게 하면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여 측면을 강조한다(E. Han, 2011).

조손가족에 대한 양면의 관점과 더불어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조부모는 조손가족의 생존에 일차적 책임을 지닌 주체로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 상태에 따라 손자녀의 양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

여진다.

조손가정 문제가 일찍부터 이슈가 되었던 서구사회의 선행연구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고통이 조부모 자신뿐 아니라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대와 방임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Goodman, 2007; Whitley, White, Kelley, & Yorke, 1999). 이혼한 자식을 대신해 손자를 키우던 70대 노인이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Yonhapnews, 2011)처럼 조손가족 조부모의 부적응은 손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부적절한 보살핌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Cox, 2009). 반대로 조부모의 순 적응으로, 부모로부터 가족해체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손자녀들에게 개입함으로써 손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Minkler, 1995; J. Park, 2009 재인용).

위와 같이 조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조손가족의 안정과 가족구성원들의 안녕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동안 선행되었던 조손가족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학, 노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분야의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5편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80편으로 급증한 만큼(W. Kim & J. Jeon, 2010)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H. Kim, 2004; H. Min, 2008; O. Park & J. Kim, 2008; J. Seong, 2001; Y. Song, 2009; E. Sin, 2004; K. Ok, 2005)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손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적응과 관련되어 있고, 조부모를 연구대상(S. Kim, 2005; M. Nam, 1999; J. Lyu, 2011; M. Lee, 2007; H. Choi, 2008)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생활에 초점을 두고 조부모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정부지원 부족, 법적 문제 및 일상생활의 변화 등에 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손가족이 겪는 사회적 소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 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주제(J. Bae, 2006; S. Lee, 2005; S. Lee, 2007; H. Lee, 2004; K. Han, J. Ju, & J. Lee, 2008)를 다루고 있는 경우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 Kim, 2012).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M. Kim & H. Kim, 2004; J. Kim, 2002; J. Park, 2009; K. Baek & Y. Kim, 2006; N. Song, 2007; H. Choi, 2002; H. Choi, 2008)은 주로 조부모의 일반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의 요인과의 관계, 또는 이러한 요인들이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조손가족은 자녀가족의 해체로 인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불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산물로(K. Han, J. Ju, & D. Jeong, 2009), 조손가족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다차원적인 요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만성적이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는 가족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델은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이다(E. Park, 2011).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은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가족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모델로(M. Kim, 2001), 가족성원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응을 스트레스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과 전체 스트레스 상황에 부여하는 개인의 평가나 지각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은 누적된 스트레스원(aA)에 대한 적응(xX)의 수준은 스트레스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bB)과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지각(cC)이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적응(xX)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일종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의 연속선상 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and Patterson(1983)의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초로 조모가 경험하는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변인으로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으로는 조손가족의 규범적 및 비규범적 생활사건을, 가족적 자원으로는 손자녀 지지와 자녀와의 결속도를,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변인으로는 가족의 재평가와 양육에 대한 재평가를 두어 이들 변인이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조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로써 조부모의 건강한 심리정서생활을 위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조손가족의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이 적합한가?

<연구문제 2>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가족적자원, 사회적 자원 및 상황평가가 요인을 매개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

1) 조손가족의 정의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와 그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조부모-손자녀 세대, 조부모-손자녀 가족, 조손가정, 조부모가구, 손자녀양육 조부모 등의 명칭으로 쓰여진다. 미국 Census Bureau 에서는 조손가족의 요건으로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한 건물 안에 동거하며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1차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거나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자녀의 의료적인 보호, 교육, 훈육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권과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에 책임을 지는 신체적 보호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3).

국내연구에서 조손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가구 안에서 동거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W. Kim & J. Jeon, 2010). 조손가족에 대한 다른 정의로 자녀를 돌볼 능력을 상실한 2세대 성인자녀가 부재하여 1세대 조부모가 3세대인 손자녀를 전담하여 돌보게 되어 성인자녀 대신에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가족(K. Kang, 2008; K. Park, 2007)을 일컫기도 하고, 조부모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경제, 사회, 정서, 신체, 교육적 욕구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H. Choi, 2009). 여기에 더하여 한쪽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어도 알코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아동양육을 조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경우도 조손가족의 정의에 포함하여(S. Jeong, 2009) 손자녀의 일차적 양육책임에 비중을 두어 정의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규정짓기도 한다(Mogef, 2010).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갖고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족(J. Lee & G. Han, 2008)으로 양육

기간을 범주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정의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조손가족의 의미를 종합하여, 조모와 막내 손자녀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거주공간을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한 지 6개월 이상 된 가족을 조손가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K. Han, J. Ju, & D. Jeong, 2009).

이러한 조손가족은 이혼 및 별거,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의 결과물로 보고 있으며, 약물중독, 범죄,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등 2세대 자녀의 환경, 그리고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등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다(D. Kim, 2006; M. Kim & H. Kim, 2004; J. Park, 2009; H. Park, 2010; S. Lee, 2007; K. Han, 2007; Kelley, 1993).

위와같이 다양한 이유로 조손가족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1995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세대 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와 그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통계청에서 파악한 조손가족은 1995년에는 35,194가구, 2000년에는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도부터는 2세대 가구로써,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가 거주하는 가구 수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거주하는 가구 수를 합하면 119,294가구로, 조손가족의 수는 더 증가하였다. 또한 부와 미혼모자녀 또는 모와 미혼모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은 각각 21.1%, 1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ogef, 2010). 이는 자녀세대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로 조손가족이 형성된다는 것과, 한 부모가 함께 살고 있어도 알코올,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아동양육을 조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도 조손가족의 정의에 포함한다면(S. Jeong, 2009) 부모가 함께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등 서류상으로만 함께 있으면서 일차적인 양육책임은 조부모가 가지는 실질적인 조손가족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

조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노인으로서 노화에 따른 신체활동능력의 저하, 시력저하, 사회변화의 부적응, 가족구성원과의 세대차이, 경제적 역할감소 등의 생애주기적인 특성을 지닌다(S. Song, 2013).

이와 같은 노인으로서의 특성과 더불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조부모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 전환전이(counter transition)의 성격을 가지는데(K. Han, 2007) 이로인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대표적인 특성으로써 “경제적인 빈곤”을 꼽을 수 있다. 조부모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양육비용까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H. Choi, 2002; Caputo, 2001). 특히 저소득층 조손가족이 형성된 과정이 성인자녀의 죽음, 이혼, 질병, 가출, 질병, 약물중독, 또는 경제적 파산과 같은 부정적인 가족사를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족사로 인한 조손가정의 경제적 박탈감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물질적, 심리적 부담으로 더욱 심화된다(S. Ju, K. Lee, & J. Kwon, 2009).

둘째, 조손가족 조부모는 신체적인 노화와 더불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과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의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Dowdell, 1995).

셋째, 조손가족 조부모는 자발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자식이 잘못되어’ 손자녀를 떠맡게 된 형편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하고, 조부모들의 ‘자은 거주지 이전’으로 사회관계망이 축소되거나 단절되어진다(K. Han, J. Ju, & D. Jeong, 2009). 더불어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개인시간의 부족으로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H. Choi, 2008).

넷째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판, 자살충동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S. Kim, 2005; S. Lee, 2005). 그리고 조부모는 자식의 죽음과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해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우울감으로 고생하거나 알코올, 안정제와 같은 약물남용에도 쉽게 빠질 수 있다(Rodriquez-Sednicki, 2002). 이와 같은 성인자녀의 가족해체나 파탄에 대해 부모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처와 더불어 손자녀에게 또 다시 부모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조부모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다(S. Lee, 2005). 즉, 조부모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정서적 고통정도가 심하며(H. Kim, 2004), 우울감이 높다(H. Choi, 2002; Minkler, Fuller-Thomson, Miller, & Driver, 1997).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무리한 양육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영향 외에도 손자녀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Whitley, White, Kelley,

& Yorke, 1999; Williamson, Softas-Nall & Miller, 2003).

이렇듯 조부모의 부정적인 특성에서 종합하여 볼 때, 조손가족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쇠약해져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과 아직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대처방안도 취약할 것이라(N. Song, 2007)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인 부정적인 특성과는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가족해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워졌을 때의 대안이 조부모가 되는 등 조부모는 자녀세대의 가족위기 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유대감을 대신해주고 여러 부정적인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가족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J. Lee & K. Han, 2008). 그리고 조부모는 풍부한 육아경험과 경륜으로 손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부모 다음 가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A. Yu, 1996), 조손가족의 형성원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부 조부모는 경제적·정서적 부담 등 양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삶의 의미를 두며, 손자녀를 잘 키운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의 안정감을 느낀다(H. Park, 2010).

조부모는 손자녀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만큼 위와 같은 조부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상태가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고통, 우울감이 조부모 자신뿐 아니라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rnic & Greenberg, 1990), 특히 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Milner, 1995). 즉, 조손가족 조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함은 물론 가사역할과 손자녀 양육까지 담당해야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런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조부모들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조부모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손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가족결속력을 붕괴시키거나 조부모의 양육 및 훈육행동의 질을 하락시켜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 Lee, 2004).

반면에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및 면모가 노인에게 삶의 목적감이나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녕이나 생활만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Haylip & Kaminski, 2005; Williamson, Softas-Nall, & Miller, 2003) 이러한 조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돌봄을 받은 손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잘 극복하고 감정적인 분리로부터 회복한다(Goodman, 2007). 또한 조손가족 조부모들이 부모로부터 가족해체나 학대 및 방임을 경험

한 손자녀들에게 개입함으로써 손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기도 한다(Solomon & Marx, 1995).

위와 같이 조부모의 정서는 손자녀의 양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상태에 따라 손자녀들의 비행이나 성격적, 정서적 결손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손가족의 행복한 가족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손자녀들에게의 올바른 양육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산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준다.

2.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

본 연구는 조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조손가족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합한 모델로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Double ABCX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을 기초로 하고자 한다. Double ABCX 모델은 Hill의 ABCX 모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 모델로, 가족의 적응을 다루기 위하여 기존의 ABCX 모델에서 네 가지 요인을 추가하였는데,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의 네 가지 요인은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긴장(aA), 가족 내·외부에서 기존의 자원 및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bB), 상황에 대한 가족의 재정의(cC), 그리고 가족의 적응(xX)단계로 구성되어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즉, 가족은 누적된 스트레스원(aA), 기존 그리고 새로운 자원(bB),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가족 인식(cC)에 따라 다양한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이에 따라 가족의 적응(xX)결과는 달라진다. 가족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경우, 이를 순적응(bonadaptation)이라 말한다. 반면 일부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여 가족 구성원 간, 가족-지역사회 간 불균형이 지속됨으로써 부적응(maladaptation) 상태에 도달한다(McCubbin & Patterson, 1983).

이러한 Double ABCX 가족 스트레스 모델은 본 연구의 변인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즉, Double ABCX 모델은 만성적이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는 가족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델(E. Park, 2011)로, 조손가족은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수십 년 단위동안 지속되는 가족형태임을 감안한다면 조손가족의 스트레스 상황, 사건에 따른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McCubbin and Patterson(1983)의 Double ABCX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누적된 스트레스원(aA)

누적된 스트레스원(aA)은 개인이나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나 긴장을 말한다. 가족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거나 또는 해결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나의 스트레스원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 또는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각 개인수준, 가족전체의 수준,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발생한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과 긴장은 이미 가족 내에 존재하는 긴장들, 초기의 스트레스원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족생활의 변화와 사건, 가족이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최초의 스트레스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 그리고 가족 내의 경계선과 사회의 모호성 등 적어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McCubbin & Patterson, 1983).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적용해보면 앞서 열거한 조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의 악화, 경제적 빈곤, 주위환경으로부터의 고립, 손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조부모와 자녀들에게 나타난 생활 사건들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조부모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빈곤, 생계를 위한 조손세대 조부모의 취업 등 경제적·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손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H. Lee, 2004). 이렇게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년기에 자신들의 생애발달주기에서 벗어난 전일제 대리부모(full-time surrogate parents)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사건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E. Han, 2011). 이러한 스트레스원은 손자녀의 부모역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는 발달적 과정에서의 생활 사건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적 사건들(가족원의 사망 등),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문제 등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된다(Park, 20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규범적 스트레스원과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원이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규범적 스트레스원은 조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사건과 손자녀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사건들의 경험의 유무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은 손자녀와 조부모, 손자녀의 부모, 조부모의 또 다른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갑작스런 사망, 중병, 수감, 혼전임신 등의 예측할 수 없고 충격이 큰 사건의 경험유무로 측정하였다.

2) 자원(bB)

어떠한 가족이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에 대해 가족이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 정도는 달라진다(S. Jeong, 2009).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의 자원(bB)은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으로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나뉜다(McCubbin & Patterson, 1983). 개인적 자원은 필요시 가족이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존감, 지식, 숙달감과 같은 개별 가족원들의 특징을 이르며 가족적 자원은 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단위의 내적 속성을 말하며, 사회적 자원은 가족외부의 사람들이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Dabrotska & Pisula, 2010). 조손가족 역시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의 관계로 나타나는 가족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원으로 측정하였다.

3) 상황평가(cC)

상황평가(cC)는 스트레스원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믿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스트레스원과 긴장, 이미 가지고 있던 자원과 새롭게 나타난 자원, 그리고 조화로운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측 등을 포함하는 전체 위기상황에 대해 가족이 부여하는 의미이다(McCubbin & Patterson, 1983). 즉, 상황평가는 가족이 위기 상황과 누적된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였는지를 말한다.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가족에 따라 기회 또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긍정적 사고는 스트레스 사건, 상황을 수용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변화를 이끈다(McDonald, 2002).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평가(cC) 요인으로 조손가족 조부모가 인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의 재평가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보상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이 함의된 양육재평가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4) 적응(xX)

적응은 누적된 스트레스원이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적응의 개념은 위기 후에 나타나는 조정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적응은 가족체계를 유지하고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향상하기 위한 자극통제, 환경조절, 균형적인 가족의 기능수준에 도달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균형 잡힌 가족생활은 동화, 순응, 그리고 타협을 포함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McCubbin & Patterson, 1983). 그리고 순 적응은 가족기능 균형

을 이루기 위한 요구의 누적과 가족역량간의 격차가 최소인 상태로써 가족통합성의 유지나 강화, 가족원의 안녕감으로 특징지어진다(N. Lee, 2005). 또한 적응은 가족구성원의 각 개인수준, 가족 전체의 수준,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를 때 성취된다(E. Park, 2011).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요인으로 부적응을 나타내는데 우울감을, 순적응을 나타내는데 행복감을 설정하였다. 이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과 관련하여 우울감과 행복감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복지는 조손가정의 안정과 가족구성원들의 안녕감에 시발점이 된다(Diener & Emmons, 1984; D. Kim, 2006 재인용)점을 고려하여 조모의 행복감, 우울감을 통한 심리적 적응을 파악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1) 조부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조부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는 조부모의 특성과 이에 대한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추하고자 한다.

조부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조부모의 신체, 정신,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 우울에 취약할 수 있으며(N. Song, 2007; H. Choi, 2002; Cox, 2009), 조부모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손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가족 결속력을 붕괴시키거나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H. Lee, 2004). 반면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은 조부모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 연구도 있는데, 손자녀 양육에 따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 보상감을 밝힌 K. Park(2007)은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외롭고 울적한 느낌이 감소되며, 성취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와의 관계 외에도 조부모와 조부모의 형제자매, 또 다른 자녀,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생활주기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규범적 스트레스원, 그리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가족 사건들을 나타내는 비규범적 스트레스원과 적응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부모의 자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1) 가족적 자원과 심리적 적응

가족적 자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족적 자원을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

와의 관계 및 손자녀와의 관계로 연구자들마다 측정된 변인들이 각각 다르지만 연구결과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가족적 자원이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자원에 따라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원 및 관계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의 심리적 안녕정도가 높았다(Goodman, 2007). J. Lee and K. Han(2008)의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손자녀의 아버지인, 본인의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그리고 행복감 또한 조부모와 아들 간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로서 성인자녀의 지원행동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D. Kim, 2006)에서 따로 사는 성인자녀의 지원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손자녀와의 관계와 조부모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J. Lee and K. Han(2008)는 농촌 조손가족의 조모-손자녀, 부모-손자녀, 조모-성인자녀 3세대의 관계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연구에서 세대관계가 좋을수록 조모의 행복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났는데 성인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손자녀와의 관계 또한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S. Yang(2006)과 J. Park(2009)의 조손가정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손자녀의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H. Choi(2002)의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 노인의 우울감과 관련한 연구 또한 손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이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 손자녀와의 관계와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2)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나타내며,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임을 많은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발생하는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나눌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우울감을 가중시키고(K. Kang, 2008; S. Lee, 2007),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M. Kim & H. Kim, 2004). 이는 조손가족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양육을 조력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H. Choi, 2002)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J. Kim(2002)의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조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가나 교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후원이나 결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심리, 정서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눈 다음 이들 집단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N. Song(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집단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과 관련한 연구(D. Kim, 2006)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모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Gerard, Landry-Meyer, & Roe, 2006)으로 볼 때,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감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는데 Kelley와 그 동료들(2000)은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조모의 심리적 고통이 심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사적지지와 공적지지로 나누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H. Choi, 2002)에서는 사적지지만 크기가 작을수록,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거나 요청할 의논상대가 없는 경우 조모의 우울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도구적 지원인 공적 지지만 크기와 우울정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조부모의 상황평가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조부모의 상황평가를 조손가족에 대한 조부모의 전반적인 인식과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경험으로 나누어 이들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D. Kim(2006)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많이 할수록, 조모의 행복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손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지각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정서임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어떠한 이유로 조손가족이 형성되었는 가보다 전담 양육하는 조모들이 양육경험을 어떻게 재평

가하는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조손가족에 대한 상황평가와 적응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리고 C. Park(2010)의 7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 350명을 대상으로 한 조모의 양육경험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연구에서도 손자녀의 양육경험에 대한 조모의 주관적인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위의 연구결과와 같이었다. 또한 노년기에 육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참여가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우울증상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Hayslip & Kaminski, 2005)와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한다는 연구(K. Kang, 2008), 그리고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된 것에 조모의 불만이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나타난 H. Choi(2002)의 연구로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

조손가족 상황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과 심리적 적응을 나타낸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적응과 관련된 다른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하고자 한다. S. Park(2011)은 Double ABCX 모델을 적용한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에서 어머니가 부여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의 재정의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하여 가족이 부여하는 의미로 가족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H. Chung, 1998)에서도 여성노인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았고 상황평가는 스트레스원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 보아 조손가족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 평가가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손가족의 범위가 조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 "사실상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손가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7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2개의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막내 손자녀가 만 18세 이하이고, 손자녀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조손가족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와 조손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배움 지도사, 키움 보듬이 등의 조사원들이 조손가족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13년 2월 25일 ~ 8월 6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34부를 회수하였고,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부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본 연구 대상과 맞지 않는 21부를 제외한 213부의 질문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조모의 심리적 적응

(1)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D. Kim(2006)이 Radol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와 MIDI의 부정적 정서반응(negative affect)를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자기 개념을 바탕으로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을 '경험한 적 없다'(1점)부터 '매일 그렇다'(4점)까지의 리커트식 4점 척도,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D. Kim(2006)이 미국 중년기 발달에 관한 연구(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에서 사용한 긍정적 정서 상태(Positive affect) 척도를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평가를 나타내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95$ 를 나타내었다.

2)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

조부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과 McCubbin and Anne(1987)이 만든 가족생활사건과 변화 척도(FILE :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FILE 척도는 가족이 경험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의 축적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 생활 주기상 각 단계에 있는 가족구성원 개인 또는 커플이 측정하며, 규범적 스트레스원과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스트레스원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과 손자녀와 조부모의 생활 주기상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즉, 규범

적 스트레스원은 조부모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경제적 어려움,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손자녀 교육에 관한 사건, 주변으로부터의 소외감 또는 고립감 등으로 나타내었다.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은 손자녀와 조부모, 손자녀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의 또 다른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럽고 충격이 큰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즉,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은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가정폭력 및 성폭력, 혼전임신 또는 유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규범적 스트레스원 21문항, 비규범적 스트레스원 7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채점방식은 생활사건의 경험여부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분하고 각각 1점과 0점을 주어 합산한 다음, 점수가 높을수록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나타내었다.

3) 가족적 자원

(1) 자녀와의 결속도

조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한 척도로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결속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ngtson과 Mangen(1982)의 척도와 Bangtson and Landry(1988)의 척도를 J. Lee(2002)가 성인자녀 관점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규범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 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또는 적응의 관련성을 나타낸 선행연구(D. Kim, 2006; M. Kim & H. Kim, 2004; Goodman, 2007)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접촉적 결속도와 기능적 결속도를 참고하였다. 즉, 위의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결속도 척도 중 접촉적 결속과 기능적 결속을 조부모의 관점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접촉적 결속은 손자녀 친부모와 일상적 만남 등의 직접적 접촉과 전화연락 등을 통한 간접적 접촉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없다' 1점부터 '거의 매일' 6점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능적 결속은 세대 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도움이나 서비스의 교환정도를 말하는데 손자녀의 친부모인 성인자녀가 조부모에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손자녀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각 결속도의 평균을 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접속적 결속도는 Cronbach's $\alpha = .87$, 기능적 결속도는 .9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손자녀 지지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 손자녀의 지지를 사용하였다.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지지는 J. Park (2009)의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인정, 정서적 지원 등을 나타내는 문항,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 J. Hong(1999)의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수정, 보완한 N. Song(2007)의 정서적 지지 척도와 H. Nam(2008)의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경제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는 가족, 친구, 친척, 기관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 혹은 이해와 격려를 받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도구적 지지는 국가제도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손자녀를 대신 양육해주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지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의 지정 및 지원,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았다.

각 문항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문항의 수는 정보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4문항, 정서적 지지 7문항, 경제적 지지 4문항, 총 18문항이었으며 각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84, .93, .74$ 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5) 상황평가

(1) 가족의 재평가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 인식을 나타내기 위한 척도로 먼저 조모가 생각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의 재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K. Son(1996)

이 번안한 MaCubbin and Thompson(1991)의 가족위기 지향 개인평가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caliation Scales, F-COPES) 중 S. Park(2011)가 사용한,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보다 다루기 쉽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재평가'를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위기 지향 개인평가 척도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버릴수 있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가족 내부자원과 가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평가, 수동적 평가, 사회적 지지, 영적 지지추구, 지역사회 자원동원 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재평가' 영역은 총 6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부모가 부여하는 가족에 대한 재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alpha = .9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재평가

조모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자녀 양육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D. Kim(2006)의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다율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손자녀의 양육의 긍정적 경험을 '보상'으로, 부정적 경험을 '비용'으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손자녀의 양육보상은 손자녀를 키우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험과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자녀 양육비용은 손자녀를 키우면서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험과 관련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손자녀 양육비용에 해당하는 4번, 5번, 6번 문항을 역채점 하여 평균을 낸 후,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였다.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재평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한,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각 개

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추정한 다음 이 측정모형을 기초로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및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는 χ^2 값과 표준 χ^2 값(CMIN/DF),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 적합도 지수 NFI, I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B. Bae, 2013).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부모의 적응에 대한 모델 검증

1) 측정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모형의 13개 측정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는 정상분포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로 그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절대값이 왜도 2, 첨도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Finch & West, 1997) 것을 감안하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값이 대부분 1 이하였고, 적어도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상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공분산구조분석으로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Figur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e15가 음오차분산(Heywood case)으로 나타나 모형이 식별되지 않았다. 오차항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경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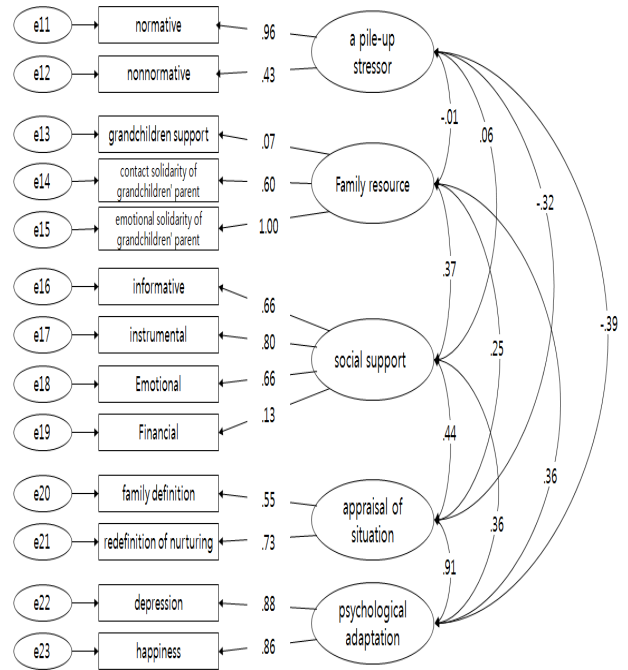


Figure 1. Measurement Model's Course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value, and Kurtosis of Study Variables

section	M(SD)	skewness value	kurtosis	
a pile-up of stressor	normative	8.83(4.02)	.10	-58
	nonnormative	1.07(1.26)	1.11	.53
	total	9.90(4.68)	.25	-.61
grandchildren support	3.66(.66)	-44	.04	
family resource	contact solidarity of grandchildren' parent	2.78(1.35)	.08	-1.25
	emotional solidarity of grandchildren' parent	1.90(1.01)	.91	-.05
social support	informative	2.94(1.11)	-.27	-.98
	instrumental	2.23(1.01)	.47	-.52
	emotional	3.46(.88)	-.93	1.01
	financial	2.95(1.02)	-.20	-.88
appraisal of situation	family definition	3.09(1.00)	-.71	-.12
	redefinition of nurturing	2.72(.58)	-.26	.49
psychological adaptation	depression	2.66(.95)	-.32	-.98
	happiness	2.59(1.06)	.15	-.87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SMC값이나 적합도 검정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음오차분산이 발생한 변수를 제거하던지, 변수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오차항을 0.005 이하와 같이 아주 작은 값으로 고정시켜야 한다(J. Song, 2013). 따라서 e15의 분산값을 0.0025로 고정시킨 후 다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이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MIN/DF 값은 4.98로 기준치에 부적합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NFI, IFI, TLI, CFI 값은 모두 .90 이하인 .72, .77, .67, .76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RMSEA(근사오차자승 평균의 이중근) 값도 .14로 나타나 모델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측정모델을 수정하기 위하여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R²)를 중심으로 측정모델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SMC 값이 기준치인 0.4 이하로 나온 내생잠재변수인, 가족적 자원의 하위요인 중 손자녀 지지(.005)와 사회적 자원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지지(.017)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 및 간명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같이 수정된 측정모델을 분석한 결과와 전반적인 적합지수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IFI와 CFI 값, 그리고 RMSEA 값이 각각 .90, .90, .10으로 나타나 수용이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

나 CMIN/DF 값이 2 이상으로 나타난 것과 NFI, TLI 값이 .90 이하로 나타나 2차 수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MC 값을 기준으로 손자녀 지지, 경제적 지지 다음으로 낮은 값을 보인 가족재평가(.311)를 제거한 후 모델의 적합도와 간명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차 수정된 측정모델의 경로와 구조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NFI, IFI와 CFI 값, 그리고 RMSEA 값이 각각 .90, .94, .94, .08로 나타나 수용이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TLI 값이 비록 부적합한 결과치를 보였지만 기준치에 거의 근사한 수치이고,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적합도 지수로 많이 쓰이고 있는(J. Song, 2013) CFI 값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94로 나타난 점, RMSEA 값이 .08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의 수치를 보인 것으로 수정된 측정모델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2차 수정한 측정모델 <Figure 3>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하 분석에서는 2차 수정한 측정모델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구조모델 검증

이상의 수정된 측정모델을 토대로, 조손가족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가족적자원, 사회적자원, 스트레스원에 대한 상황평가를 통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 즉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모델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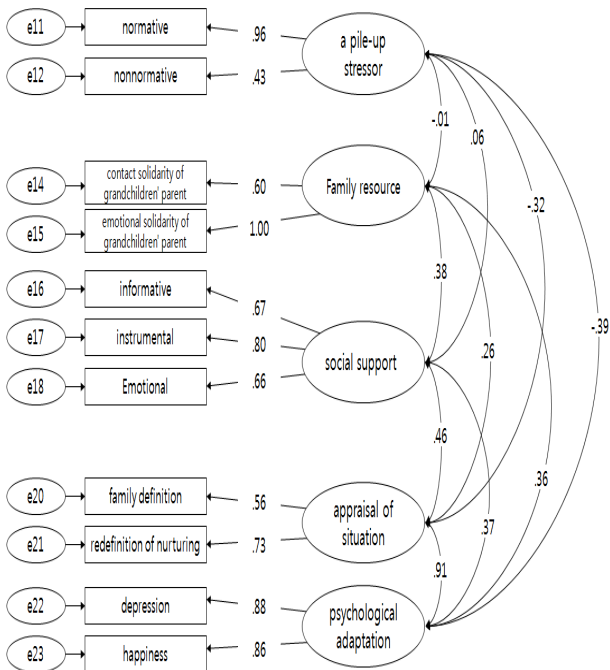


Figure 2. 1st Modified Measurement Model's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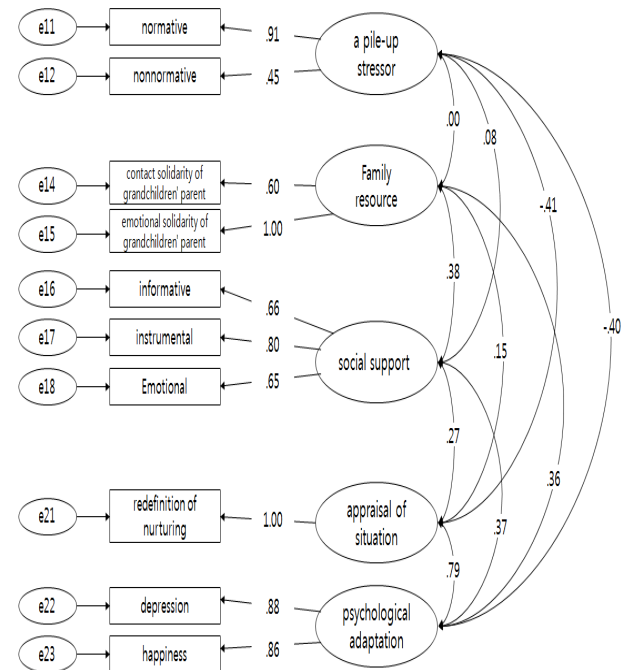


Figure 3. 2nd Modified Measurement Model's Course

Table 2. 2nd Modified Measurement Model's Structure Course Coefficient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t-value)	R ²
A pile-up of stressor					
normative	.96	6.39	1.97	3.25	.82
nonnormative	.43	1.00			.21
family resource					
contact solidarity of grandchildren' parent	.60	.81	.07	10.98	.36
emotional solidarity of grandchildren' parent	1.00	1.00			.99
social support					
informative	.67	.92	.12	7.71	.44
instrumental	.80	1.00			.64
emotional	.66	.72	.09	7.68	.43
appraisal of situation					
redefinition of nurturing	1.00	.51			.26
psychological adaptation					
depression	.92	.88	.07	13.73	.77
happiness	1.00	.86			.74

* t-value > ±1.96 = * < .05

Table 3. Modified Structure and Course Coefficient

Structure of lat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t값)
family resource ← A pile-up stressor	.01	.00	.108	.052
social support ← A pile-up stressor	.10	.08	.112	.870
appraisal of situation ← A pile-up stressor	-.37	-.43	.089	-4.179***
psychological adaptation ← A pile-up stressor	-.23	-.14	.119	-1.885 [‡]
appraisal of situation ← family resource	.02	.04	.050	.477
psychological adaptation ← family resource	.24	.22	.072	3.394***
appraisal of situation ← social support	.19	.29	.066	2.938**
psychological adaptation ← social support	.14	.12	.093	1.522
psychological adaptation ← appraisal of situation	1.23	.67	.160	7.765***

* t-value > ± 1.96 = [‡]p < .10, *p < .05, **p < .01, ***p < .001

인하기 위하여 구조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모델의 적합도는 χ^2 값이 97.09(df=28) 이고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RMSEA 값이 .11로 일반적인 수용수준인 .08~.10의 범위를 벗어났

며 NFI와 TLI는 권장수준 .90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좋은 모형이라고는 말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보다 더 나은 구조모형을 대안적인 모형을 검토하였다. 즉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그 중 주요원인은 어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경로가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 Hong, 2003). 모형의 적합도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경로를 표시해 주는 값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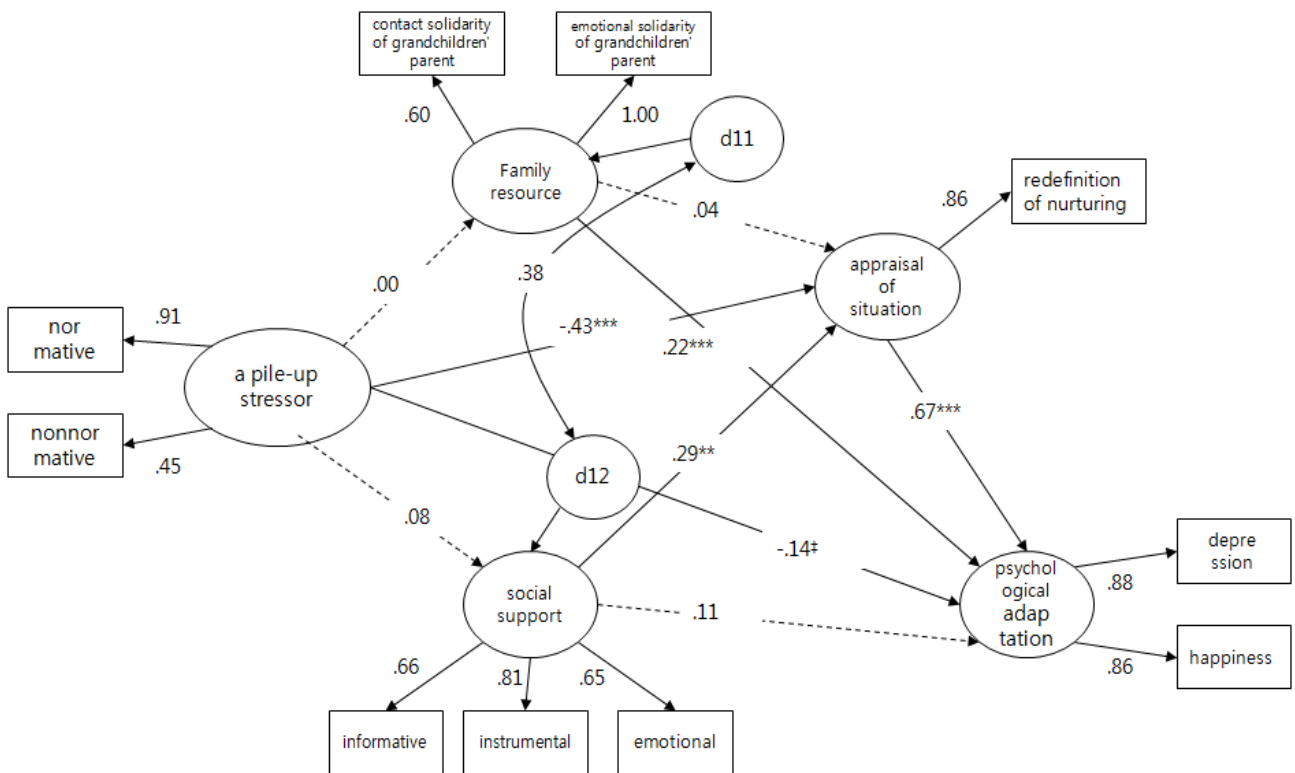
구조모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가족자원의 잔차(d11)와 사회적 자원의 잔차(d12)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적합도가 좋아지는데 가족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모델에서 bB인 자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로간의 관계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에 따라 d11과 d12간의 연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가족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잔차간의 공분산을 시킨 후 구조모형을 다시 검증한 결과, $\chi^2 = 72.29$, $df = 29$, $p = .000$, $CMIN/DF = 2.68$, $NFI = .90$, $IFI = .94$, $TLI = .89$, $CFI = .94$, $RMSEA = .08$ 로 경험적 자료에 충분히 적합하며,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모의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 즉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가족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 상황평가를 거쳐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변인 간 관계의 구조경로계수와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Table 3>, <Figure 4>과 같다. 또한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Table 4>에 같이 제시하였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설정된 관계 경로 9개 중 5개의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에서 상황평가($\beta = -.43$, $p < .001$)와 적응($\beta = -.14$, $p < .10$)으로 가는 직접 경로, 사회적 자원이 상황평가로 가는 직접경로($\beta = .29$, $p < .01$), 상황평가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 .67$, $p < .001$) 및 가족자원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 .22$, $p < .01$)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상황평가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황평가를 통해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조모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상적인 스트레스사건 또는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손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험이 낮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자원은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자녀의 부모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조모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원은 상황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p<.10, *p < .05, **p < .01, ***p < .001

Figure 4. Model of Structure and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able 4. Model of Structure' Effect Disassemble

course	directly effect	indirectness effect	total effect
family resource ← A pile-up stressor	.00	×	.00
social support ← A pile-up stressor	.08	×	.08
appraisal of situation ← A pile-up stressor	-.43**	.02	-.35**
appraisal of situation ← family resource	.04	×	.04
appraisal of situation ← social support	.29**	×	.29**
psychological adaptation ← A pile-up stressor	-.14	-.26 [‡]	-.64*
psychological adaptation ← family resource	.22**	.03	.27**
psychological adaptation ← social support	.12	.19**	.38**
psychological adaptation ← appraisal of situation	.67**	×	.67**

*[‡]p<.10, *p < .05, **p < .01

며, 심리적 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상황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친지, 이웃, 기관종사자 등 조모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물질,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의 경험이 많았다.

넷째, 상황평가는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자녀를 키우면서 긍정적인 인지의 경험을 많이 할수록 조모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조모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게 해주는 변인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가족적 자원, 그리고 상황평가가 있고,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이 상황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각 잠재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전체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상황평가가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2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원, 가족적 자원 순으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 또한 나타났는데,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가족적 자원에, 가족적 자원은 상황평가에,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사회적 자원에, 사회적 자원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각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크기 및 인과관계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수정모델의 적합지수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McCubbin and Patterson(1983)의 Double ABCX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적용이 적합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간 선행연구에서 보여진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단편적인 요인들 간의 분석을 본 연구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조손가족 조모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실천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연구 방법론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조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경로와 표준화 계수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설정된 관계 경로 9개 중 5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에서 상황평가와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 사회적 자원이 상황평가로 가는 직접경로, 상황평가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 및 가족적 자원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의한 각 경로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상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조모가 경험하는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많을수록 손자녀 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조부모가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과 손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손자녀 양육에 대해 비유적 측면을 많이 지각한다고 나타난 H. Lee(2004)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손가족이 발생할 시, 조모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과 사건,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공적 네트워크 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조손가족이 형성

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네트워크 망의 활약으로 조손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여 손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조모가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적응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규범적 스트레스원은 조모의 가족생애주기상의 일상적인 생활사건으로 조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상황과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나타내는데 가족생활사건이 적을수록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 연구결과(J. Park, 2009; S. Yang,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우울감과 관련하여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K. Kang, 2008; N. Song, 2007; H. Choi, 2002; Cox, 2009)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위의 연구결과 역시 조손가족이 경험하는 누적된 생활사건이나 긴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자원은 상황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완충시킨다고 한 연구(Y. Song & S. Lee, 2011; Krause, 1997)를 입증한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보는데 대한 조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 연구결과(Bowers & Myers, 1999; Musil, 1998)와 일치한다. 그리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손자녀의 일시적인 돌봄이나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건 등의 제공,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의 격려나 공감, 인정 등과 같은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 손자녀 양육이 많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 양육자로서의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손가족을 위한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지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를 위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 및 기관의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한 직·간접적인 개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조모의 상황평가는 심리적 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조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조모의 심리적 복지 증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D. Kim, 2006; K. Park, 2007; C. Park, 2010; H. Choi, 2008)의 결과를 입증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된 것에 조모의 불만이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H. Choi, 2002)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양육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모간의 정기적인 모임의 주최 및 조모의 자존감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모의 가족적 자원은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 Lee & K. Han,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손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로서 성인자녀의 지원행동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 Kim, 2006; J. Lee & K. Han, 2008)와 일치하며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의 안녕정도가 높다고 한 Goodman(2007)의 연구결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의 친부모들의 양육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조모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S. Yang, C. Lim, & Y. Oh, 2008)와 같이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즉 친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양육문제를 같이 협의하거나, 전화나 방문의 횟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생활만족도는 높았음을 나타낸 결과를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인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노여움과 서글픔을 느끼는 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 Seo & Y. Kim, 2009)와도 같이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손자녀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손자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조부모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 상태에 도움이 되고 조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손자녀가 독립할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설정된 관계 경로 9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4개의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가족적 자원에, 가족적 자원은 상황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의 조부모들이 자녀의 무능력이나 상실로 인해 예기치 않게 손자녀를 맡아 새로운 가구를 꾸리게 되는 것(Ehrle, Green, & Clark, 2001)을 고려할 때, 조모가 자녀의 연락이나 일상적인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가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공적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둘째,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사회적 자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지능력이 감소하고 기본적인 정보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약해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H. Choi, 2012) 특성을 지니는데, 위의 결과는 조모의, 인지능력이 감소되는 노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조모는 노인으로서 조손가족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 지원체계에 대한 수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손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자원을 연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원은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고 있지 않을 나타낸 결과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상황평가를 매개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손자녀 양육에 대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이 가족적 자원, 사회적 자원 그리고 상황평가가 변인을 매개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모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게 해주는 변인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가족적 자원, 그리고 상황평가가 있고,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이 상황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각 잠재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전체 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상황평가가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원, 가족적 자원 순으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상황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이 조모의 상황평가를 통하여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합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손가족을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기쁨과 보람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시작점은 자녀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조부모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경제적 빈곤과 힘들어도 기댈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건강악화,

복지체계의 결여 등 이들 가족이 세대를 가로지르면서 경험하는, 결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닌 만큼(Han, Ju, & Jeong, 2009) 조손가족에 대한 자원의 지원과 더불어 조모 내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사회적 자원이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황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조손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국가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조손가족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모가 지각하는 심리적 적응의 정도가 높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국가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회적 자원의 지원보다 손자녀 양육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입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모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애환을 나누고 위로하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녀와의 세대 차이를 줄이고 가족의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조손가족 캠프와 같은 조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에서 조손가족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조손가족의 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조손가족뿐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조손가족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조손가족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혼자서 손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들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부가 함께 손자녀를 돌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가사활동이 어려움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손자녀의 양육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부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본 연구의 주제를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조모의 적응과 손자녀의 적응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조모로 한정되어 있어 손자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모의 적응과 손자녀의 적응과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후

속연구가 이루어져 현재 손자녀에게 집중된 지원체계를 조모와 양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조모의 상황평가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하여,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람이나 즐거움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 중 가족적 자원 중 손자녀 지지와 사회적 자원 중 경제적지지, 그리고 상황평가 중 가족 재정의는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지만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조모의 적응과 관련한 모델의 적합도의 향상을 위하여 잠재변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관측변수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이와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족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조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은 만성적이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적합하고, 가족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모델이다. 조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본 연구가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의 적용에 적합하였음이 검증됨으로써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할 때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요인으로 연구시점의 사건이나 스트레스 상황, 또는 손자녀 양육의 경험을 탐색하였는데, 조손가족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불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산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탐색하고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조부모의 삶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모의 행복한 정서는 필요충분조건임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조모의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자원, 상황평가에 대한 개입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REFERENCES

- Kang, K. J. (2008). The Effectiveness of Case Management for the Function Strengthening of the Grandparent-Grandson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111-128.
- Kim, D. Y.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and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D. J.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tress out of Rearing Grandchildren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parents in Families with Only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Seoul, Korea.
- Kim, M. H. & Kim, H. 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153-170.
- Kim, S. H. (2005). *A case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ies and their welfare demand: focused on the Seongju area in Gyeongsangbukdo*. Unpublished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Kim, W. K. & Jeon, J. A. (2010). 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10. *Journal of Korea Psychology*, 15(4), 653-671.
- Kim, J. E. (2002).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H. S. (2004). A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Attitude to Bring up, Care Stress on Grandchildren's Adjustment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 85-117.
- Nam, M. S. (1999). *A Study on the life and support for grandparent in charge of grandchild parent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mam University, Daejeon, Korea.
- Nam, H. S. (2008).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tres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Gyeongsangnamdo, Korea.
- Song, S. H., Kwon, S. S., Lee, S. M., Ha, K. B., Jin, J. Y. (2013). *Geriatric psychology*. Sinjeong.
- Lyu, J. H.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nd Family Support System for Them*. Unpublished Master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Min, H. Y.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Paternal /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33-41.
- Park, K. A. (2007). A Study of How Social Support Affects Rewards For Grandparent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25-45.
- Park, S. T. (2012). *The Effects of Role Burden Immigrant Married Women on Quality of Life: The application of double ABCX model*.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 Park, E. S. (2011).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 Mother Having A Child with Autism ; The application of double ABCX model*.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 Park, J. E. (2009).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 Ra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Park, C. S. (2010).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Raising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2), 105-125.
- Park, H. S. (2010).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Care-giving Experiences of Grandparents and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Chung 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3), 779-791.
- Bae, B. L. (2013). *AMOS 19 Structure equation modeling: Chungnam*.
- Bae, J. H. (2006).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Baek, K. S. & Kim, Y. R. (2006).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who rear their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1(4), 109-128.
- Seo, H. R. & Kim, Y. H. (2009).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care-giving experiences of grandparents and their social service need.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67-296.
- Seog, J. H. (2001). *A Study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Grandchildren Parented by their Grandparents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N. Y. (2007). *Grandparents of the grandparents - grandchildren family'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Y. M. (2009). A Study on Development Path Model of the School Resilience. *Social Wellbeing Development Institute*, 15(2), 143-164.
- Song, Y. M. & Lee, S. J. (2011).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Behaviors i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Grandparent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3), 795-811.
- Song, J. J. (2013). *For making thesis SPSSAMOS statistic analysis methods: 21cbook*.
- Sin, E.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of grandchildren-headed hom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grandchildren : focused on their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 Yang, S. K. (2006).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 ra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S. M., Rim, C. S., & Oh, Y. J. (2008). A relative effects of reward-cost value on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change in the rural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after grandchildren raise. *Journal of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18(2), 145-178.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2010 grandfather and grandson investigation*
- Ok, K. H. (2005).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55-65.

- Yoo, A. J. (1996). Research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279-293.
- Lee, N. H. (2005). *Model of stress and adaptation in the parent's with high risk infant*.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 nam-do, Korea.
- Lee, M. Y. (2007). Formation Process and Living Conditions of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17(1), 203-230.
- Lee, S. H. (2005). *A study on the burden and the reward of grandparent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S. J. (2007). *The Burdens and the Welfare Demand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Rural Area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m*.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J. H. & Han, K. H. (2008). Intergenerational Triad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177-196.
- Lee, J. Y. (2002).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s Caregiving Burde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Lee, H. J. (2004).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Grandpar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S. (2009). *Characters of Grandfamily and Grand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 J. (1998). Relationship of Stressors, Resources, and Appraisal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3), 74-89.
- Ju, S. H., Lee, K. E., & Kwon, J. S.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97-131.
- Choi, M. S. (2012).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of the elders residing in a commun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H. G. (2002). Depression in Low Incom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3), 207-222.
- Choi, H. J. (2008). Study on the Profile of Depression and the Mechanism of Depression Among the Custodial Grandpar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122-149.
- Choi, H. J. (2009). Study on Custodial Grandparents based on Sen's Human Capability Paradigm.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03-126.
- Statistics Korea. (201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trieved from <http://kosis.nso.go.kr>
- Han, G. H., Joo, J. H., & Lee, J. H. (2008). Caregiving Rewards and Costs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4), 1147-1164.
- Han, G. H., Joo, J. H., & Jeong, D. G. (2009). Life Course Perspective on Social Exclusion and Adjustment of Poor Custodial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 87-122.
- Bowers, B., & Myers, B. (1999). Grandmother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Caputo, R. (2001). Depression and Health among Grandmothers Co-residing with Grandchildren in Two Cohort of Women. *Families in Society* 82, 473-483.
- Casper, L. M. & Bryson, K. R. (1998). Co-resident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Grandparent Maintained Families. Population Division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 C., Population Division Working Paper, 26.
- Census Bureau. (2000). Census 2000 Briefs and Special Reports-Grandparents Living With GrandChildren-. <http://www.census.gov/prod/2003pubs/c2kbr-31.pdf>
- Cox, C. (2009). Custodial grandparents: Policies affecting care.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7, 177-19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browska, A., & Pisula, E. (2010). Parenting stress and coping styles in mothers and father of pre-school

- children with autism and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3), 266-280.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33, 27-30.
- Ehrle, J., Geen, R., & Clark R.L. (2001). Children Cared for by Relatives : Who Are They and How Are They Faring.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Policy Brief B-28.
- Gerard, J. M., Landry-Meyer, L. and Guzell Rpe, J. G. (200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with caregiving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2(4), 359-384.
- Goodman C. C. (2007). Intergenerational triads in skip-ped-generation grandfamil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5(3), 231-258.
- Hayslip, B., & Kaminski, P. L. (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45(2), 262-269.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Circumstances and decision.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Johnson, P. & Rubin, A. (1983). Case management in mental health: A social work domain. *Social work*, 28(1), 1-12.
- Kelle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Kelley, S. J., Whiteley, D.,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Krause, N. (1997). Anticipat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economic str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2B(6), 284-293.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 Family Review*, 6(1), 7-37.
- McCubbin, H. I. & Thompson, A. I. (1987). Family Assessment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McDonald, L. (2002). Hill's Theory of Family Stress and Buffer Factors:Build the Protective factors and Socila Relationships and positive Perception with Multi-family group. <http://cecp.air.org>.
- Milner, J. S. (1995). Physical child abuse assessment: *Perpetrator ecaluation*, 41-67.
-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D,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 445-452.
- Musil, C.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141-155.
- Rodriquez-Srednicki, O. (2002). The custodial grand-parent phenomenon: A challenge to school and school psychology. *NASP Communique*, 31(1), 41-42.
- Sands, R. G. &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Solomon, J. C. & Ma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U.S. Census Bureau. (2003). U.S. grandparents living with grandchildren. U.S. Bureau of the Census.
- Yonhapnews. (2011). 2011. 8. 21 *Grandfather, suicide after murdered his grandchildren*. Retrieved from <http://yonhapnews.co.kr/>
- Walker, A., Martin, S., & Jones, L. (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130-139.
- Williamson, J. & Miller, J. (2003).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n Exploration of Their Experiences and Emo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ling and Therapy for couple and families*, 11(1), 23-32.
- Whitley, D. M., White, K. R., Kelley, S. F. & Yorke, B. (1999). Strengths-based case management:The applicant to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0(2), 110-119.

- 접 수 일 : 2014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14년 06월 05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15일